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easset.com

Summary

2022-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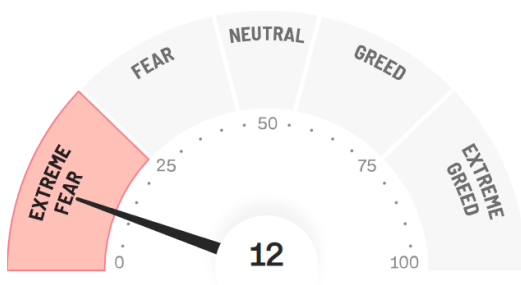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로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를 소개 한다.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는 분배금과 낮은 변동성, 그리고 우량주라는 데서 안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 최소 25년 이상 주당배당금을 증가시켜온 종목을 배당귀족 이라고 칭하는 만큼 꾸준한 분배금과 함께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높은 재무 건정성 등급을 받은 기업들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에 포함된 종목들은 각 섹터에서 '리더'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기업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미국 내 규모가 큰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이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현상이 이어져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성장성 역시 가지고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도 이후 미국 S&P500 배당귀족 지수는 S&P500 지수를 1.4배 아웃퍼폼 했다. (기준일 :2022.05.16)

걱정스러운 물가 상승률에는 배당 귀족?!

지난 ETForU #24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첫 ETF로 TIGER 미국 MSCI 리츠 ETF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상품은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편안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 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도 크게 변하지 않을 생각이 든다. 지난 ETForU에서 VIX와 연준의 스탠스를 체크해봤는데, CNN이 제공하는 공포 & 탐욕 지수를 보면 공포를 넘어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해있다. (2022년 5월 1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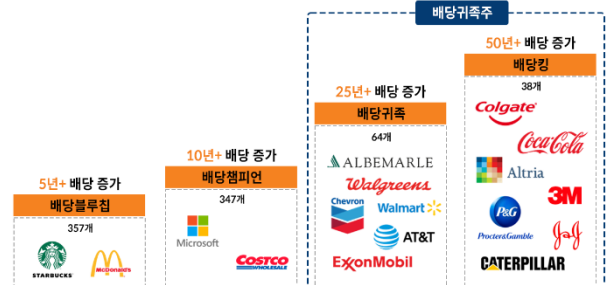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안정성 그리고 놓치기는 아까운 성장성이 어느 때보다도 그리워진다.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의 안정성은 분배금과 낮은 변동성, 그리고 우량주라는 기업들의 공통분모에서 기인한다. 성장성은 해당 ETF가 보유한 기업들이 각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해당 ETF 내 가격 결정력이 높은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은 점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고무적이다. 우선 배당 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에선 낯설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면 S&P500 지수 편입 종목 내에서 최소 25년 이상 주당배당금을 증가시켜온 종목을 뜻한다. 미국에선 배당 블루칩(Blue chip), 배당 챔피언(Achievers), 배당 귀족(Aristocrats), 배당 킹(Kings)이 통용되는 명칭으로 각각 5년, 10년, 25년,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기업들을 지칭한다.

〈CNN Fear & Greed Index〉



자료: CNN

〈배당귀족의 정의〉



자료: SureDividend.com,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2년 4월 30일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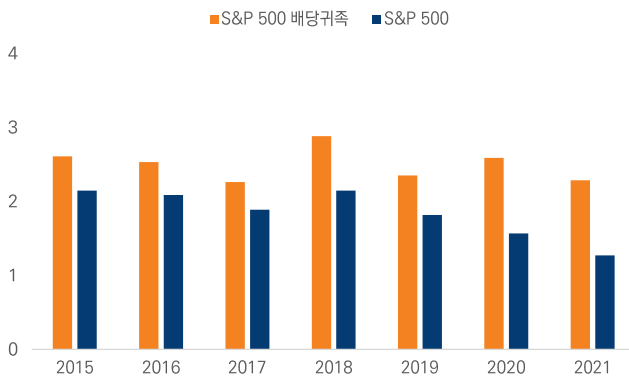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easset.com

미국 배당귀족주들의 안정성을 보자

안정성을 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가장 와 닿는 부분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플러스로 찍히는 분배금이다. 이전 소개했던 미국 리츠와는 분배금 경로가 다른데, 리츠 ETF의 경우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에서 분배금이 나오지만 S&P 500 배당 귀족의 경우 기업들의 배당금이 자원이다. 2015년부터 평균적인 지수의 연간 배당수익률은 2.5 %로, 이는 S&P500 연간 배당수익률 대비 평균적으로 0.65%pt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수의 배당수익률이 ETF의 분배율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참고해볼 수 있다.

<S&P 500 배당귀족 지수 연간 배당수익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 자료는 당사 상품이 추종하는 지수의 연간 배당수익률로 단순 참고용입니다

*분배율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대표 지수와 변동성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2년 5월 9일

2021.05.05=100pt

그 다음으로는 변동성을 살펴보자. 미국 S&P500 배당귀족 지수의 변동성은 나스닥 100지수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 1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성은 24%, S&P500은 17%, 미국 S&P 500 배당귀족 지수는 14%다. (기준일: 2022년 5월 9일) 수익률 역시 나스닥 100지수와 S&P5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선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 S&P500 배당귀족 지수에 포함된 필수소비재, 산업재 내 우량주들의 방어력이 빛났다.

우량주는 실적과 현금흐름이 좋고 경영이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을 뜻하는데,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재무건정성, 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매겨지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체크 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S&P500 배당귀족 지수에 포함된 64개의 기업 중 44개의 등급은 A 이상이며 이는 Moody's의 신용 등급 체계인 21개의 단계 중에 7위 이상을 받은 셈이다. 해당 기업들의 높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존슨 앤 존슨은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았으며 P&G는 Aa3, 월마트는 Aa2, 등 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현금흐름, 기업의 안정성, 재무건정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량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각 회사의 신용등급은 아니지만 연관된 항목들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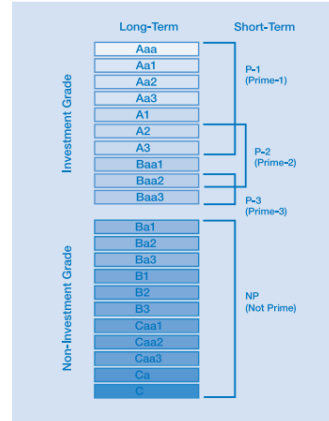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easset.com

〈S&P500 배당귀족주 대표 기업들의 신용등급〉

기업명	신용등급	기업명	신용등급
EXXON MOBIL	Aa2	AUTOMATIC DATA PROCESSING	Aa3
COCA-COLA	A1	CHEVRON	Aa2
JOHNSON & JOHNSON	Aaa	TARGET	A2
MCDONALD'S	Baa1	CATERPILLAR	A2
P&G	Aa3	ABBOTT LABORATORIES	A1
WALMART INC	Aa2	ATMOS ENERGY	A1
3M CO	A1	HORMEL FOODS	A1
COLGATE-PALMOLIVE	Aa3	KIMBERLY-CLARK	A2
PEPSICO INC	A1	LINDE PLC	A2

자료: Bloomberg, Moody's
기준일: 2020년 말

〈무디스 신용등급 체계〉



자료: Moody's

미국 배당귀족주의 성장성?! The Bigger, the Better?

앞서 미국 배당귀족주의 안정성을 배당과 변동성 그리고 신용등급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성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안정적이면 성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S&P500 배당귀족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리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이어져왔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 (자료_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간한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s Growing. Why?" 를보면 ROA(총자산 순수익률,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차이는 1990년에 15%였던 반면 최근에는 2배 이상 커져 30%~35%정도 난다. 우량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장은 더딜 것이라고 보는 것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미국 증시 내 "The bigger, the better" 트렌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표 미국 배당귀족주들의 각 섹터 내 시가총액 순위는 1위, 3위, 2위 등 각 섹터 분류 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미국 배당귀족주들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 대표 배당귀족주들의 각 섹터 내 시총 순위〉

기업명	섹터 분류	시가총액순위
Exxon Mobile	Integrated Oil	2위
Coca Cola	Non Alcoholic Beverages	2위
Johnson & Johnson	Large Pharma	1위
McDonalds	Restaurants	1위
P&G	Personal Care Products	3위
Walmart	Supermarkets	1위
3M	Office Supplies/ Diversified Industrials	1위/3위
Nextera Energy	Renewable Energy Generation	1위
Pepsi co	Non Alcoholic Beverages	3위

자료: Bloomberg
기준일: 2022.05.16
기준: Classification 기준 Bloomberg, GICS, BICS

〈큰 기업은 앞으로도 성장하지 않을까?〉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s Growing. Why?

by Vijay Govindarajan, Baruch Lev, Anup Srivastava, and Luminita Enache

자료: Harvard Business Review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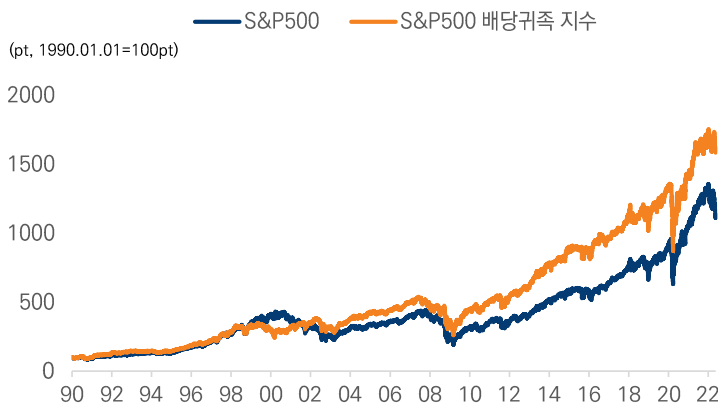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easset.com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

실제로 미국 S&P500 배당귀족 지수의 주가를 1990년도 부터 S&P500과 비교해서 그려보면 약 1.4배를 아웃 퍼폼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배당귀족주는 안정적이면서 벤치마크 대비 오히려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다. 해당 인덱스를 추종하는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 에는 모든 종목이 동일 가중인 만큼 다양한 산업에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필수소비재는 P&G, 월마트, 코카콜라 등 인플레이션 상황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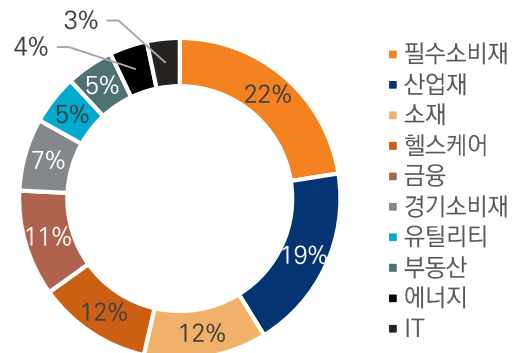
배당 매력과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TIGER S&P500 배당귀족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S&P500 배당귀족 지수 장기 성과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1990.01.01~2022.05.16 1990.01.01=100pt
*과거 수익률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TIGER S&P 500 배당귀족 ETF 산업 비중〉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2.04.30
*구성종목 및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easset.com

상품 개요

구분	TIGER 미국 S&P500 배당귀족 ETF
종목코드	A429000
최초상장일	2022년 05월 17일
기초지수	S&P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 (Price Return)
총보수	연 0.25% (집합투자업자: 0.20%, 지정참가: 0.01%, 신탁 : 0.02%, 기타: 0.02%)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 분배금 X 15.4%

* 상기 명시된 총 보수와 함께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 어디 없나? ② 미국 배당귀족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asset.com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 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 신탁 위험 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위험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 ETF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226 호 (2022.05.24~2023.05.23)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분배금(액)은 운용실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